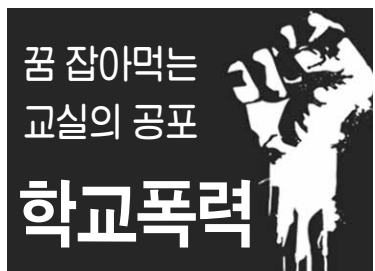


작년 가해학생 광주·전남 2334명... 발생률 전국 3위



(1) 광주·전남 발생 실태

대부분 폭행·금품갈취 60명 퇴학·162명 전학 학생 힐링캠프 운영키로

학교폭력이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2334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가담했다. 대부분 폭행과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등이었다. 특히, 중학생들의 폭력이 심각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대책으로 고작 CCTV 설치 확대, 인성교육·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을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학교폭력 실태와 문제, 대책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208명당 1명이 학교폭력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0.60%)·강원(0.53%)에 이어 공동 3위(0.48%)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2334명에 달했다. 광주가 1139명, 전남이 1195명이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이 48만631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208명 당 1명꼴로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대구가 가장 심했다. 학생 10만 명당 가해 학생 수는 대구가 595명, 강원 533명, 전남 480명, 광주 479명, 전북 404명, 부산 396명, 대

전 314명 순이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과 공갈(금품갈취), 강제 심부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역은 폭행이 336건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어 공갈 119건, 상해 24건, 따돌림 21건, 강제 심부름 18건, 명예훼손·모욕 15건, 사이버폭력 14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강제 심부름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폭행(66건), 공갈(58건), 따돌림(52건), 상해(47건) 등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60명이 퇴학 조치됐고, 162명이 강제 전학을 갔다. 광주에서만 591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열려 3명이 퇴학·71명이 전학 조치됐다. 또 16명이 학급을 바뀌어 했고, 99명은 출석정지처

다. 316명과 203명이 각각 학교폭사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총 545건의 학교폭력 심의를 열어서 퇴학 57명, 전학 91명, 학급 교체 53명, 출석정지 133명,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6명, 학교봉사 244명, 사회봉사 281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정석기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생 활과장은 "학교 스트레스가 심하고 공동체 문화가 약해지면서 예전엔 단 순 장난으로 여겨졌던 것도 요즘은 심각한 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담임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힐링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단위:명·%)

지역	전체학생수	가해학생수	비율
대구	351183	2092	0.60
강원	201546	1076	0.53
전남	248886	1195	0.48
광주	237425	1139	0.48
전북	259686	1050	0.40
부산	413989	1640	0.40
대전	223759	704	0.31
경남	459039	1168	0.25
서울	1161632	2760	0.24
제주	88028	181	0.21
충북	214026	412	0.19
충남	281869	538	0.19
경북	332449	570	0.17
인천	376113	609	0.16
경기	1701253	2474	0.15
울산	170293	224	0.13

(자료: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



1600억대 교비 횡령 이홍하씨 재구속

광주고법, 검찰 보석 취소 수용... 재수감까지 시간 걸릴듯



새봄 나무심기 광주시 공무원 500여명이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영산강 수변공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6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사학 설립자 이홍하(74)씨가 다시 구속된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따라 고법이 보석결정을 취소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어 이씨를 어떤 과정을 거쳐 구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우 부장판사)는 20일 이씨를 비롯해 서남대 김도 총장, 신경대 송모 총장, 한려대 한모 사무처장 등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 결

정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이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풀려난 지 41일 만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인 이씨 등에 대한 집행은 상당한 시간 이 걸릴 전망이다. 고법의 결정문 등본이 광주고검으로 전달된 뒤 검찰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도달해야 구속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미뤄지자 지난 8일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신중한 이씨의 유류로 지난날 7일 허가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야 사법 정의가 바로섰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시간 싸움"이라고 말했다. 애초 1000억원대 사학비리로 구속 기소됐던 이홍하씨는 서남대 외에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교비 576억 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

육아휴직 빈자리 30% 정규교사로 채운다

정부가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하는 교사의 빈자리 약 30%를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교사로 채우기로 했다. 정규교사들의 육아휴직 증가와 도입기피로 기간제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가 답임을 받는 사유를 조사·분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육아, 유학, 과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휴직하는 교사의 30% 정도에 대해 정규교사 정원을 추가 확보해 답임 등 정규교사의 빈자리 대부분을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방안을 줄이기로 했다. /연남스

편의점 여종업원 위협 강도

광주광산경찰은 20일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19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27)을 흉기로 위협,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주려고 금고를 열자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공사비 부풀려 나랏돈 18억 끌leck

전남경찰, 영농조합 대표 등 31명 적발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고 빼먹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영암 모영농조합 대표 이모(54)씨 등 3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 조합과 업체 관계자 12명은 지난 2008년 9월 사료공장 신축공사비를 부풀린 이중

계약을 작성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18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료공장을 신축하면서 국비(30%)와 군·도비(39%) 외에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31%)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27억 4000여만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낸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자체 부담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상품권 싸게 판다" 속여 600명에 11억 사기

경찰, 소셜커머스 운영자 구속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수백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소셜커머스(사회적 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사기 혐의로 소셜커머스 '투게더 티켓' 운영자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11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626명으로부터 1337

회에 걸쳐 11억 4800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을 정상가보다 13~38% 싸게 판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특히 3~12개월에 걸쳐 나눠 배송하는 '세트상품'을 내세워 첫 달치 상품권을 실제 배송하고 나머지는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새사람 되라" 절도 학생 용서한 목사

○2년간 생활 하고 있는 교회에서 금품을 훔친 10대 학생의 범행을 해당 교회 목사가 용서해 주길. ○2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안모(15)군은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 한 교회 목사 이모(53)씨의 자갑에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100달러 지폐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에서 안군은 "용돈이 적어 순간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목사는 이군의 소행을 알고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바로 옆으로 이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3-3-206호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직업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로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광주 우체국

공전제과

개업시은물증정 3개이상 구매시 망치증정
선착순 22일 50개, 23일 50개 한정

2호점 메가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뺀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태가 내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태가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시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붓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광주점
원장 김동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06-3-9819호 [광고]